

중 국

◆ 제1의 첨단기술산업 단지 中關村의 명암

베이징(北京)시 하이톈취(海澱區)에 소재한 중관춘 과학기술단지(中關村科技園)<sup>1)</sup>는 1988년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타이완의 신주(新竹)를 모델로 설치된 이후 규모와 생산활동 등 다방면에서 중국 제1의 첨단산업기술단지로 발전하였다.

풍부한 인적자원 바탕으로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단지로 부상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30%의 공업생산 증가를 이루었고, 2000년에는 공업생산액이 130억 달러로 베이징 공업생산액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수출 규모도 20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이 곳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은 8,800개 사이며, 1999년 말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도 1,100개 사(투자금액 32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2001년에만 347개 외국인투자 기업이 추가로 입주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 기업인 쓰통(四通), 련상(聯想), 광정(方正), 시왕(希望), 다형(大恒)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는 미쯔비시, 마쯔시다, 지멘스 등이 입주해 있다.

중관춘은 베이징 대학과 칭화(淸華) 대학 등 중국 유명 대학이 밀집해 있는 중국 제일의 인적자원 보고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더하여 최근에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인재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2000년 말 현재로 1,917명이 입주했으며, 이들이 창업한 기업만도 2000년 6월 말 현재 500개가 넘는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중국내 첨단기술산업단지가운데 가장 활발하다.

미흡한 제도로 기업들 단기이익 집착 경향 심화

1)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총면적 28.3km<sup>2</sup>로 海澱園, 豐台園, 昌平園, 電子城科技園과 亦庄科技園으로 나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법인세)를 영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 4~6년간 50% 감면하고, 7차 연도부터 15% 세율로 징수함. 또한, 생산제품의 40% 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참고로, 상하이(上海)시도 푸둥(浦東)에 장강과학기술단지(張江高科技園)를 조성함으로써, 북에는 중관춘, 남에는 장장웬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단지로 육성하고자 함.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의 위축에 영향을 받아, 양적인 수량 증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활기는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질적인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

첫째, 첨단기술 산업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대기업들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 가운데 세계 시장에 통용될 수준에 도달한 것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은 4.7%에 불과하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기술도 10.0% 수준으로 낮다는 점이다.

둘째, 정확한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중관춘 입주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인데다, 회계의식이 낮아 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들 기업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거의 대부분이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위기를 인식한 일부 기업들은 어느 한 기업의 결제 불능이 연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금거래를 고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인력 스카우트 현상이 심하다. IT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참여로 CEO나 엔지니어의 인력 스카우트가 가열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봉은 대개 15만 위안(1.8만 달러)을 상회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고급인력 유출로 인해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 2001년에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조례’(中關村科技園區條例)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집행 부진과 관리의 소극적 태도로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IT 산업 부진으로 인해 첨단기술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벤처 캐피탈의 자금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들도 이들 기업의 재무상황과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내부적인 평가 시스템의 정비 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개발붐을 타고 최근에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의 고급 사무실은 매매가격이 평방미터당 14,000위안(1,700달러), 임대료가 1일 8~10위안(1달러) 수준이며, 저급일 경우의 임대료도 1일 3위안(0.4달러)이나 된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중관춘에 입주해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시내 중심가로 회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불법 복제품 난무, 관료조직의 경직성, 컨벤션센터 부족, 교통 혼잡, 기업간 분업체계 미흡, 국가와 법인간의 재산권 보호 등이 중관춘 산업단지의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경영자와 근로자의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이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金 周 永】